

2018년 4월 7일 "(성경의 큰 숲 보기 12) 사무엘상: 왕권국가로의 전환"(삼상 15:16-23)

<도입>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왕정국가로 전환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약 BC1400) 바벨로니아에 망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때(BC586)까지 서술하는 역사책들이 있습니다.

1. 왕정국가 이전: 여호수아와 사사기
2. 왕정국가 출범과 첫 세 왕(통일왕국시대): 사무엘상~열왕기상 11 장
3. 분열왕국(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열왕기상 12 장~열왕기하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죄와 과오로 유업(가나안, 성전, 가옥...)을 잃은 것에 대해 신학적으로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성 있는 과거 극복의 길을 제시하고자 했죠. 역사서들의 최종본은 포로기 때 완성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관점에서 역사서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사무엘과 사울

당시 이스라엘의 큰 문제는 블레셋의 공격이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한, 현재 팔레스타인의 조상입니다. 데릴라, 골리앗이 블레셋 출신입니다. 이들 때문에 불안했던 이스라엘은 주변국가들처럼 중앙 집권적인 왕권 체제를 이루어 힘을 모으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정 체제를 갖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요청을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삼상 8:7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허락하십니다. **삼상 9 장**을 보면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매우 중요한 유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왕권을 잘 지키고 가꾸면 개인적/국가적인 열매가 약속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고대 근동 국가들의 왕의 개념과 달랐습니다. 고대 근동 국가들의 왕은 자신만이 신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부여하고 백성들을 조정하며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아들 됨의 정체성을 갖습니다(창 1:26-28). **출 4:22**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만아들)'라고 소개합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백성의 대표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잘 대행할 수 있는 직분자입니다.

[2] 초대 왕 사울

사울은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영의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왕의 첫째 임무는 외세 침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의 초대 왕 때에는 조직이 체계화되지 않았고, 단지 군대를 이끄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 초기에는 승리를 거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좋은 것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사무엘은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고, 약탈하는 데 마음을 쏟았다고 지적합니다.

22-23 절(읽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모르는가! 주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고 합니다. **15:35**, "여호와께서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사울의 왕권 유업이 거두어 진 것입니다.

이 일로 사울은 상심했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악화됩니다(16 장). 소년 다윗이 나가 싸워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로 이끈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군대를 환영하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치자 사울은 더욱 상심하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다윗이 질투하여 미움, 적개심, 편집증, 우울증까지 얻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사를 데리고 추격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결국 블레셋을 막으라고 세워진 그는 그들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3] 사울이 주는 영적 교훈

15:24. 사울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군인들(사람들)을 두려워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두렵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주신 유업의 길로부터 멀어집니다.

다른 이유는 탐심입니다. 아말렉 소유 중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위하는 척 했지만 자기 실속을 차림으로써 그 전쟁이 약탈 행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꺾여 열매를 보니 먹음직, 보암직, 슬기롭게 보임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진 것과 같죠. 이 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는 유업을 잃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도 왕권 유업을 잃었습니다. 사울은 후대왕들이 따르는 왕권 유업의 모델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위의 이유로 주님은 그의 왕직을 버리셨습니다. 유업을 잃자 삶의 참 의미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의 축복도 잃었습니다.

유업을 잃은 것이 구원의 취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업을 잃은 구원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고합니다. 사울과 같이 유업을 잃는 성도들은 결국 삶이 무의미해지고, 무의미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업의 상실은 공동체를 역행시킵니다.

고전 3:10-15(읽음)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하는' 경우를 바울은 말합니다. 사울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위해 말씀과 성령께 의지하는 삶의 방식과 습관으로 살면 유업을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밋음>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에서 초대 왕이 왕권 유업을 잃은 것이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국력 소모, 패전, 분열)을 끼쳤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하고 욕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유업이 회복되어 개인적/공동체적으로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질문>

1. 사울의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잃은 것은 무엇이며 공동체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2. 나를 구원하시고 삶의 영역에서 주신 유업(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염두에 두고)을 한 가지 떠올려 보십시오. 유업을 잃지 않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